

여수산단 입주 37개 기업 원료공급 중단 위기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4년째 지연 화학공업제품 42% 처리... 물류대란 불가피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나포부두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원료 공급 중단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나포부두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37곳에 달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부두 기능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하여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은 3년동안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지 4년차에 접어든 것이다.

여수산단은 5123만㎡의 면적에 283개 기업, 2만명이 종사하고 연간 생산액이 66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종합석유화학 단지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제품을 처리하는

부두시설 부족으로 매년 부두 체선율이 상승, 입주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수산단 화학공업제품 비중의 42%를 처리하는 나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좌초되고 시설마저 폐쇄된다면 입주 기업들은 심각한 원료 공급난과 더불어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비료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그동안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왔으나 나포부두가 폐쇄될 경우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비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135기의 저장탱크를 운영하며 국내외 기업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주)여수탱크터미널은 "나포부두 폐쇄 시 실질적으로 대체 가능한 부두가 없어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지는 것은 물론 30개의 원료수급업체들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지역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양항은 국내 물동량의 18.7%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만 예산의 4.3%만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20%가 넘는 심각한 체선이 발생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4년째 지연되면서 나포부두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수산단 전경 (광주일보 사진)

‘국제도시디자인포럼’ DJ센터서 열린다

28일부터 30일까지

도시디자인 국제학술대회인 '2018 국제도시디자인포럼' (이하 도시디자인포럼)이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국제교류센터와 한국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은 '도시디자인, 광주다움'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일본, 프랑스, 미국 도시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학문·사회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이어간다.

개회식은 29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이어지는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의 가치를 함께 열어가자는 공공디자인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려가는 경관디자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안전 도시디자인

등 3개 세션이 운영된다.

또 특별회의에서는 '도시디자인, 광주다움'을 찾다! 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이 밖에도 광주의 도시디자인에 관심 있는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하는 '2018 국제도시디자인포럼 청년캠프', '건축가 100인 국제전', '건축가 김동하 풍경스케치 작품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성을 알고, 고유함과 독특함을 상품·브랜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저명인사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시디자인포럼 관련 내용은 포럼 홈페이지(www.gu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한중 지사 성장회의 참석 中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부터 3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지사성장회의에 앞서 26일 베이징 소재 국립대학인 중국농업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한다. 중국농업대학교는 2002년부터 광주전남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 관련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강연에서 전남의 미래 농업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한다. 또 전남



도와자매결연 교류를 하는 장시성(江西省) 관계자들과 고위급 회담도 예정돼 있다. 오는 27일에는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한다. 김 지사는 이 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문화관광 여건과 주요 정책을 알리고 협력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대중교통계획안 의견 수렴

내달 9일까지...도시철도·마을버스 연계 편의성 높일지 주목

광주시는 제3차 광주광역시대중교통계획(안)을 수립해 12월 9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금까지 제1차, 제2차 대중교통계획이 '탁상 계획'에 그치면서 대중교통의 불편이 가중됐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중심으로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로 한 만큼 이를 계기로 실현 가능하며, 대중교통 간 연계성을 최대한 높여 승용차 통행을 규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시에 따르면 계획안은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대중교통 수단 분담율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대중교통 시각 지대 해소 등 4대 목표 10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제3차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계획(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1월 제정)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1차 및 2차 계획(2012~2016)에 이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의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시는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광주광역시교통위원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과 교통관계 전문가 인접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제3차 대중교통계획(안)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2층 시내버스 2021년 도입 추진

4대 시범 운영...도로 여건 안맞고 가격 높아 경제성 논란 예상

광주시가 출·퇴근 시간대 일부 노선에 2층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2층 시내버스는 서울시도 지난 1991년 시범 운행 후 중단하는 등 국내 도로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고, 가격도 대당 4억 5000만원에 달해 경제성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많은 좌석 02번 등 일부 노선에 2층 시내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운영 시기는 2021년으로, 좌석 65~100석 규모의 4대를 구입해 시범 운영한다.

시는 2층 시내버스 도입되면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은 높이고 운영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층 버스에는 경사판이 함께 장착돼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끄는 교통약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을 마련하기 위해 굴절 시내버스와 2층 시내버스 도입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2층 버스의 경우 대형버스 운전사라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운전이 필요한 기술 숙련도가 높지 않고, 차량 가격과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장점이다.

굴절버스는 승하차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엔진 출력 문제가 가속이 늦고, 좁은 도로에서 사고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9일까지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교통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2층 시내버스 도입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도로에 2층 시내버스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경제성 등을 검토해 시범운행을 한 뒤 실제 운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발작물경영체 6곳 선정

해남농협 등 4곳 고구마 진도 서진도농협 등 양파·대파

전남도는 25일 "발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사업으로 공모한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전국 14개소 가운데 가장 많은 6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 및 규모화해 생산비 절감 및 품질을 고급화하고, 통합마케팅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해남농협, 영암 황금유용농협조합법인과 월출산농협, 무안 해양농조합법인인 고구마를, 함평 나비골농협과 진도 서진도농협은 양파, 대파의 품질 개선을 위해 각각 2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5개소를 지원해 생산 및 유통을 혁신하는 경영체를 육성했다.

특히 무안 정계농협과 신안 임자농협이 우수경영체로 선정돼 각각 500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규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광주에도 원팀(One-Team) 체제의 로펌이 출범하였습니다.

2018. 11. 1. 업무를 개시한 법무법인 에스&파트너스는 부장판사를 역임한 손진홍 변호사, 부장검사를 역임한 송길용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기업법무 등 송무와 자문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Needs를 명확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손진홍 변호사
광주 송원고, 한양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인천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남원시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길용 변호사
광주조대부고, 조선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광주고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원
서울동부지검·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SONG-SON & PARTNERS

법률상담 문의. 062-229-8300
Fax. 062-229-8301 E-mail. snp8300@naver.com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 3·4층 (지산동)